

# WEC의 Conservation &

會 議 參 加 報 告

## Studies 委員會에 다녀와서



南 廷 一

(韓國電力公社 技術研究院)  
院 長

지난 5월 6일과 9일에 오스트리아의 뷔엔나 시에서 각각 개최되었던 WEC의 Program Committee(PC)와 Conservation & Studies Committee(C&S)에 참석하였다. PC에 참석은 원래 IEC 부의장인 鄭根謨 박사를 대신한 참석이었으며, C&S會議에는 87년 9월 서울IEC會議에서 본인이 정규 위원으로 選任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參席하게 된 것이다.

C&S會議는 87년 9월 이전에는 PC 산하의 Technical Committee의 하나였던 Conservation Committee가 격상되어 Administration Committee, Program Committee와 더불어 3개 常任委員會로서 독자적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C&S가 PC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開催된 것도 과도기적 현상을 調整하고 상호 밀접하게 協助關係를 유지하자는 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오스트리아 國內 委員會가 시의 적절하게 東西가 자유롭게 共存하며 교통하는 Vienna市에 소재하는 IAEA, OPEC 및 UNIDO 등 國際 에너지機構가 있는 Vienna International Center(VIC)로 招請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먼저 6일에 있었던 PC會議는 움저버를 합하여 약 30명의 代表들이 참석하여 '87/89 技術分科委員會 計劃' 등 12개 議題를 다루었다. 특히 이번 PC會議는 89년에 개최되는 'Montreal Congress'를 대비한 技術 報告資料의 준비일정과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데 目標를 두고

主催國인 캐나다 國內委員會側과 세심한 내용 파악과 일정 확인이 있었다. AECL 사장이었으며 89년도 總會의 技術委員會 의장인 Dr. Donnelly의 성의있는 준비상황 소개는 WEC總會의 방대성과 重要性을 새삼 인식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참여키로 계획되고 있는 14次 Montreal 總會의 技術發表會는 4월말 현재 접수된 論文(抄錄)이 172건이며, 5월말까지는 다소 추가될 展望이고 금년 6월 말까지는 論文 內容을 심사한 후 통과 여부를 각국 國內委員會에 통보하리라 한다. 당초 論文 모집때는 國別로 논문수를 제한하였으나 접수 결과는 나라에 따라 過不足 현상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คว้า는 2편인데 7편을 提出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คว้า가 178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두 통과되리라고 기대된다. 통과된 논문의 最終 원고마감은 89년 1월 말로 되어있다.

總會때는 Main Technical Session외에 6개의 Round Table(R.T)와 2개의 Strategic Issues Session 및 몇개의 Working Group(W.G)로 구성될 것이며 發表內容의 충실과 會議 成果의 생산적 도출을 기하도록 88년 7월에 소집될 International Advisory Panel(IAP)에서 각 Session의 議長, Panelist 및 Officer등 선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選定, 추천할 것이라 한다.

다음 7, 8일 양일에는 휴일이라서 Danube 계곡에 위치한 Melk地方의 사원과 水力發電所 견학을 하였으며 Opera관람계획도 준비되어 있었다.

9日 화요일에는 본인이 속해있는 C & S 會議이 개최되었다. 원래 스칸디나비아 5國의 제안에 의하여 개편된 組織이며, 또한 스웨덴의 에너지계 원로인 Ekberg씨가 同會의 의장으로 被選된 관계로 스웨덴으로서는 새로운 구상으로 WEC의 '이미지' 부각에 각별한 勞力을 하게 되었다. 즉 PC로부터 독립하여 보다 구체적인 技術問題를 다루게 되므로서 그동안 어찌면 산만하듯하였던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상황을 整備하여 研究計劃을 체계화함으로써 침체된 듯한 WEC에 대한 世界的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무엇인가 각 會員國의 에너지政策家들에게 권위있는 작품과 의견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를 推薦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技術分科委員會와는 별도로 4개 분과의 Task Force(T. F)를 구성하고 분과에 Coordinator를 임명하고 Central Coordinator에 스웨덴 ASEA社 社長을 지낸바 있는 Mr. Lindstrom씨를 선임코자 하자는 것이다.

4개 T. F 및 추천된 Coordinator 는 다음과 같다.

- T. F 1. Energy Sources : Global and Local Sourcing Coordinator : Mr. J. C. Balaceanu(IFP)
- T. F 2. Energy Conversion Coordinator : Mr. Kagata(Toshiba of Japan)
- T. F 3. Energy Utilization and Economics Coordinator : Mr. Kohn(ICC)
- T. F 4. Energy System Coordinator : Prof. Hafele(West Germany)

원래 13개 議題를 토의할 C & S 會議는 우선 89년 Montreal 總會 준비와 관련된 C & S 소관의 13개 기술분과위원회의 課題를 검토할 計劃이었으나 6일에 있었던 PC會議에서도 예비적으로 토의하다가 C & S 會議로 미루었던 Task Force Team 구성에 관한 특별 案件을 먼저 다루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委員들 사이에서는 장시간의 신랄한 討議가 진행되었다. 組織改編後 아직 업무분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총회대비 會議 일정이나 運營問題를 다루고 있는 PC의 Davis議長과 주최국인 캐나다의 Dr. Donnelly 는 C & S 의 Ekberg 議長의 위와 같은 구상이 14차 總會와 관련한 시

간적인 촉박성때문에 그 効果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하였으며, 87년 총회보다도 그 이후를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慣例的인 절차에 따라 IEC 總會의 결정에 따르자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다. 그러나 본 구상의 의도하는 바가 WEC의 權威와 품위를 改善하자는 순수하고 강한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ad hoc' 형태의 機構로 'Test Platform' 격으로 推進시키되 14차 總會때는 Working Group Session 에 포함시켜 Task Force의 研究結果物을 제시하기로 일단 합의하였으며 상설기구로서의 役割등에 대하여는 88년 9월 스톡홀름 IEC 會議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하였다. C & S 會議는 9일 하루종일 이 문제를 討議하느라 나머지 議題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처리, 決定토록 하였다.

양일간 會議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몇가지 追加하고자 한다.

○ 모든 會議 참가위원들은 WEC의 앞으로의 役割에 대하여 活性化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공동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 Seoul 87-IEC 會議後 처음 만나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모두 우리가 보여 주었던 '87 서울大會議 준비상황과 성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89년의 14차(캐나다와 92년의 15차(스페인) 總會準備를 하고 있는 主催國의 노력이 현저하였으며 특히 스페인의 組織委員會側은 미리부터 한가지라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도 여러가지 問題를 묻고 확인하였다.

○ 각종 Technical Committee 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해당회의 참석이나 資料交換에 적극적으로 임함과 동시에 이들 內容이 종합되어 國內 會員社에 유용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問題는 이미 國際化가 심화되고 있는바, 관련기술 情報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수를 위해서는 WEC 와 같은 會議體를 통한 에너지外交의 적극적인 展開가 절실히 요구되며 國家的 에너지 關聯政策의 결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